

## **아세르 (아셀)의 5 중 축복** © 2000 년 아세르 인트레이터

아세르는 히브리어로 “복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조상들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모세가 특별히 아세르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 **신명기 33:24-25**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쇠와 놋으로 만든 문빰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이 복에는 다섯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엡 1:3). 하지만 그것들이 이 땅에 성취되려면 우리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실상 예수아께서는 이 복들을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갈 3:13).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의 침노해서 취해야 합니다 (마 11:12).

### **아이들을 향한 축복**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는 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의 일부는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을 주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룩하고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복도 내려 줍니다.

성도로서 우리 아이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호의가 그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허나 때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그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환경들과 육체, 그리고 대적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분께 감사하며,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 **친구 및 동료들로부터의 호의**

때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거절하거나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처가 되지요.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실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은혜와 호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거기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적들로부터도 호의를 얻게 하십니다 (잠 16:7).

여기 나오는 히브리 단어 르쭈이는 ‘~에게 기쁨이 되다’ 그리고 ‘~와 화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 전도에 갇혀

모세는 아세르의 신발이 철로 될 것이라 했습니다. 문맥상, 이 말은 아세르 지파의 언덕 가운데 귀중한 미네랄 유가 발견됨을 이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복음과 연결된 축복을 봅니다. 그의 신발이 복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발이 복음을 전하러 떠날 준비가 되리라는 에베소서 6:15의 바울의 선포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철이라는 단어는 바르젤인데, 또한 영적으로 견고하고 강하며, 심지가 굳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철과 같이 강해지리라는 것입니다.

신발이라는 단어는 나알인데, '잡그다'와 어근이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무언가에 '갇히다'라는 뜻을 보여주는데, 예컨대 목표나 표적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갇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 어딜 가든 기름 부음 받는

모세의 축복은 우리가 밭을 기름에 담그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옛적의 농사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름은 기름 부으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밭이 기름에 잠기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해가 지나갈수록 자연계에서는 성도들이 지치고 피곤하여 집니다. 어떤 이들은 탈진도 하고, 또 실망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주님의 능력과 불을 상실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실망감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수가 거듭할수록 우리의 기름 부으심과 믿음은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 분께선 강하십니다 (고후 12).”